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레위기 17:11, 히브리서 9:12

정윤돈 목사님

* 레17:11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 히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237나라,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개인의 직업, 현장,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후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도전해야 할 성취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일본전도집회가 있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일본에 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일본은 너무 전도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이번 집회를 가보니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서 절대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면 일본 제자들이 가장 바르고 가장 변함없이 지속한다. 세계 하나님께서는 일본에 교회를 세우는 마음을 주셨다. 이미 수십 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세계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병원을 세워야겠다는 기도를 한다. 일본에 최고의 땅대를 만들어야겠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캠프에서도 팀을 만들어서 충성된 자, 예비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를 찾으시기 바란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짐승을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제도가 있었다. 이 모든 제사는 짐승을 드림으로 피를 흘리게 되어있다. 이 피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들을 죽이기 전에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모른다. 이처럼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달달 외우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같이 무식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다.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게 마른 하늘에 벼락 맞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모든 선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는 건 사실 복음을 잘 모른다는 말이다. 여러분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한다. 우리에게 아무 정신적인 문제도 없을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실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다. 복음 못 깨달은 것이다. 문제는 복음 못 깨달았을 때 전도가 안 되고 제자가 안 나오고 선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다 '나'가 주인이 되어 끝에서는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피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원죄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중에서도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서신서 중 하나이다. 저자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 바울, 바나바, 아볼로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핵심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 없다. 어떤 분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싸운다고 교회 안 온다. 남편이 장로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온다. 누구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우리는 내 남편과 내 자식, 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전도와 복음, 제자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한다면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더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순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천사들, 모세,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의 제사제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임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보다 내 자리, 내 자존심, 명예, 자식을 가장 중요하고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응답 못 받을 사람이다. 또한 두 번째 핵심주제는 예수님의 희생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성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구약 율법에 대한 의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핵심 복음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지켜야 하고 해야 하고 말아야 하고를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지금도 광야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 가지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신다는 믿음이다. 색깔은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필요한 것들을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혜들이 따라온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뭐 없다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어설픈게 믿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복의 근원이 되셔라.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1.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시며,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로 묘사된다.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심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냥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2)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 설명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신 신실하니” 모세는 집을 지키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주인의 아들이 종보다 더 높다고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3)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아론과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리고, 매년 반복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대제사장보다도 더 높은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다.

(4)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심을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통해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영원하고 더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된다. 히브리서 7장 7절에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더 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받은 사람이 높나 드린 사람이 높나?'라는 것이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5)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제도보다 더 위대하시다. 구약의 제사제도와 율법은 반복적인 제사와 불완전한 속죄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분의 희생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또 죄를 짓고 제사를 또 지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번의 제사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면서 너무나 가치있는 존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죄 이후에는 재앙이 온다. 반면에 죄 문제가 해결 되면 축복이 온다.

2.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내용만 보겠다.

(1) 첫째로 구약의 제사제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유대인은 일 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한다는 의미로 들어갔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도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다 회개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었다.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께서 하늘보좌의 모든 속죄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2) 두 번째는 구약의 성막과 대제사장 그리스도이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소,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참된 지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3) 세 번째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 계열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 제사장직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에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시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8절에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즉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온전하신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까지 이야기한다. 구약의 모든 제도를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하는 완결판이라고 이야기한다.

(4) 네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구약의 율법제도는 옛 언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만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신천지는 자기들을 보고 새 언약이라고 말한다. 신천지 이만희는 신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 이단들을 쫓아다니고 이단들에게 들은 걸 모아서 말한다. 영적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강단의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5) 다섯 번째로 율법의 그림자와 그리스도의 참된 실체이다. 율법과 구약의 제사제도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된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율법의 그림자에 숨겨진 복음이 드러난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중요한 요절이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 아마 펄펄 펄 것이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 복음화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사함을 완성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

(6) 다음은 구약의 피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이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불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한 것임을 설명한다.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성경에 고멜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한 번으로 끝내셨다.

(7) 구약의 안식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의미한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 뱀음을 당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 주시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란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내 자식이 넘어져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복음과 진도를 위한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이 제자 찾고 캠프 프하고 선교에 올인하면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릇을 준비하면서 자격을 갖추고 공부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세 계화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해라.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7이정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① 첫 번째는 갈보리산이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스도 복음의 완성이다. 십자가다.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갈보리산의 응답을 증거하도록 기도해라. ② 감람산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신 곳이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③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일어났다. ④ 안디옥교회, 예루살렘교회가 깨닫지 못했는데 안디옥교회가 새롭게 깨닫고 전도, 선교의 새로운 시작을 했다. 그 안디옥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게 하시고 그 주역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⑤ 에베소교회는 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선교의 센터역할을 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⑥ 빌립보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다. 루디아와 간수와 귀신들린 여종과 예비된 제자를 만나서 유럽복음화가 시작되었다.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⑦ 결국 로마다. 개인마다 나의 땅끝이 있다. 그 땅끝복음화를 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지식들을 복음과 그리스도로 재해석, 재적용 할 수 있는 전도세대, 선교세대, 치유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옵소서. 한국 교회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말세지말에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